

중소기업 ‘기술주치의’ 로 은퇴 과학자들 나섰다

글 | 권영일_ 코리아플러스 취재부장 sirius001@paran.com

은 광용 박사는 인조 다이아몬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소재 분야의 거목’이다. 그의 평소 꿈은 ‘부품·소재의 극일(克日)’이다. 하지만 이 소망을 이루기도 전에 평생을 몸담았던 KIST에서 정년을 맞았다. 이쉽기만 했다. 그런 그가 최근 다시 활기를 찾았다. 기술컨설팅 회사인 기술과기치(주)에서 지난달부터 부품·소재 기술을 산업화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은 박사는 우리 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는 일에 계속해서 일조를 할 수 있어 가슴이 설렌다. 정부출연연구소를 퇴직한 고급 과학기술인력과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짝지어 주는 ‘테크노 닥터’ 사업 덕분이다.

중소기업인에게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가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대부분 두 가지를 든다. 기술과 자금이다. 기업 규모가 작으니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오지 않고,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돈을 대는 곳이 적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은 박사와 같은 퇴직한 고급 과학기술자들이 이들을 위해 자신이 평생 쌓은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퇴직 고급 과학기술자 활용 ‘테크노 닥터’ 제 도입

과학기술부는 퇴직 과학자들을 활용하기 위해 시작한 ‘테크노 닥터제도(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의 하나로 퇴직 과학자 79명과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79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20~30년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던 과학자들이 퇴직 후에도 풍부한 경험을 중소기업에 전수해주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 “기업과 퇴직 과학자 모두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좋았다”며 “퇴직한 과학기술자들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부족한 기술개발 능력을 보완하고 연구생산을 높일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한 해마다 100명 안팎의 테크노닥터를 뽑아 지원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국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 연장(61~65세) 요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부 한형호 과학기술진흥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정부출연연과 민간기업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지원함으로써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가 민간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테크노 닥터’ 사업 공고를 하자 ‘사람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중소기업은 282개사, “평생 쌓은 노하우를 활용할 기회를 달라”는 퇴직 과학자는 129명이었다. 이들이 ‘맞선’을 본 결과 최종 79쌍이 의기투합했다.

1차 테크노 닥터 79개사 선정, 풍부한 경험 전수

과기부는 테크노 닥터 선정과 관련, “기술 자문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퇴직 과학자 명단을 인터넷에 올려 놓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과학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테크노 닥터는 앞으로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중소기업에서 활동하게 된다. 매주 이틀 이상 근무하며 현장에서 기술을 지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게 된다. 퇴직과학자의 보수는 정부가 월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도 매월 정부지원비의 25%인 50만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 활용될 퇴직과학기술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35~45세	46~50세	51~55세	56~60세	61~65세	66~75세	계
6(7%)	3(4%)	9(11%)	7(9%)	40(51%)	14(18%)	79(100%)

한 사람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최대 3년이다. 실적평가는 매년 연구개발 계획과 성과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 엄격한 관리는 당연하다.

이번에 선정된 79명의 퇴직과학기술자들을 분석해보면, 연령대는 60대 초반이 40명(51%)으로 가장 많고, 70세 전후가 14명(18%)으로 뒤를 이었다. 학위별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53명(67%)으로 가장 많고, 석사학위 소지자와 학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16명(20%), 10명(13%)이다.

연구경력연수별로는 20~30년 출연연 재직 경력자가 34명(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년 19명(24%), 10년 이하는 10명(13%) 순이었다. 30년 이상 경력자도 16명(20%)에 달했다.

테크노 닥터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기술별로 전기·전자 분야가 2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기계·금속·소재 분야 21개사, 화학·생명 분야 9개사 등이었다.

선정된 기업 분야별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분 야	선 정
1분과 (31)	전기전자	27
	정보처리	4
2분과 (24)	기계	12
	건설·엔지니어링	3
	금속	6
	소재	3
3분과 (24)	화학	5
	생명과학	4
	식품	4
	환경	6
	기타	5
계		79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테크노 닥터로 선정된 사람 가운데 최고령자는 (주)건설화성에 서 화학분야 연구 업무를 담당한 71세의 유광근 씨다. 그는 한국인 삼연초연구소에서 38년간 연구한 경험이 있다. 이외에도 노직장을 과시하는 테크노 닥터는 많다. 성문전자(주)에서 기술 자문을 하는 이춘식(70) 박사는 ‘기계 분야의 전문가이자 독일통’으로 통한다. 그는 ‘성문전자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의 부품 기술을 지도해 세계 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66세의 정형진 박사도 재료 분야의 권위자다.

전풍일(63) 박사는 원자력연구소에서 36년간 근무한 뒤 2년 전 퇴직했다. 한국형 경수로사업의 원자로 설계 전문가인 그는 국제 원자력기구(IAEA)에서 10년간 원전국장을 맡을 정도로 이 분야의 권위자다. 그는 지난달부터 원전 설계기술자문업을 하는 벤처 기업 ‘GNEC기술사무소’에 출근하고 있다. GNEC 기술사무소 김영중 대표는 “전 박사가 국내외에서 쌓은 경험을 잘 활용하면 우리 회사의 기술개발이 하층 더 가속화할 것 같아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구 인력이 절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자체 연구소를 세워 운영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가 대학과 연구소의 고급 인력을 연구와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다.

테크노 닥터제도는 은퇴한 과학기술자에게 계속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대전 소재 바이오 벤처기업인 바이오니아에서 탄저균 등 위험한 세균을 감지하는 진단카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김치순(62) 씨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9년간 위험물 탐지 연구를 한 경험을 살려 회사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㉔



글쓴이는 한국외국어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내외경제신문(현 헤럴드경제신문)에서 논설위원,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